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서당과 현대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비교



2009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서 석 훈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서당과 현대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비교

지도교수 조 세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서 석 훈

서석훈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박 화 진 (인)

위 원 문학박사 이 근 우 (인)

위 원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II. 전통 서당의 인성교육

1. 교육내용
2. 교육평가
3. 훈육과 예법지도
4. 교육과정의 특징

III. 현대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1. 교과교육
2. 특별활동
3. 재량활동
4. 생활지도
5. 교육과정의 특징

IV. 현대 초등학교에서의 적용가능성

1. 교육과정의 다양화
2.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3. 훈육지도방법의 다양화
4. 교육평가방법의 다양화

V. 결론

표 목 차

<표 1> 특별활동 영역별 목표와 내용	26
<표 2> 인성교육 영역 및 덕목	28
<표 3> 서당놀이의 초등학교에서의 방안	39



A Comparison Between the Character Education
Seodang and Modern Elementary School

sek hoon se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principle, the goal of education lies in the completion of personality. Appropriate education for personality is needed at all levels of the curriculum at school. In particular, primary schools are designed for holistic education, and these days, it seems very difficult to conduct holistic education at school.

There are three key reasons for this situation among others.

First, personality education is not possible to be made by school alone, but it should go hand in hand with family, which is actually hard.

Second, in this era when entrance to university is regarded as the ultimate goals of school, what is required of school is to raise students' performance, which focuses on intellectual education only.

Third, schools have too many students in a class for desirable personality education. The success of personality education comes from a good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he teacher, but overpopulated classes make the teacher have such a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 stud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how can we solve these problems?' Considering that an analysis on the curriculum of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educational institutes, seodang will result in good solutions, we bega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personality education at seodang, the study reviewed literatures related to the Korean education history and history of Korean thinking and previous studies on the seodang education to look into the content and methods of personality education especially used at seodang and investigated holistic education aspects in the modern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and compared personality education at seodang with that of primary school today in order to suggest solutions to apply to primary

school personality education today.

As a result, holistic education methods used at seodang which can be applied to primary school holistic education include the following: first, flexible operation of curriculum by level, second implementing various learning-teaching methods such as dialogue learning, self-driven learning, complete learning, play learning, third, emphasis on balance and harmony of knowledge, virtue and health, fourth, various applying various humanity education methods, and finally diverse types of evaluations, not a uniformed method, to assess holistic aspec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의 기본 목표는 인격의 완성에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말의 본래의 개념이 인성 지도를 바탕으로 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표면적이든 잠재적이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에 관한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성의 형성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미 취학 전 가정생활을 통하여 부모 교육의 영향으로 인성의 기본이 형성되어 있으며, 취학 후 성장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많이 쇠락해가고 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학교의 인성교육이 담당해야 할 범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담당해야 할 일이, 단지 지적인 교육, 기능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더더욱 이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학교 현실은 인성 지도를 제대로 해 내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도시의 학교들은 거

대학교라는 교육상의 근본적 부담을 안고 있고, 최근의 교사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 문제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성지도라는 교육 작용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대화와 시범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들 수 있다. 대화는 마음의 만남을 의미하여 그것이 없는 곳에 인성적인 영향이 이룩될 수 없다. 대화가 있어도 교사의 시범이 없으면 학생은 신뢰하고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시범이 있다고 해도 학생과 교사 간에 바람직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밀도 높은 교육적 영향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밀학급과 대형학교가 즐비한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교육의 최대 난점인 대학입시 문제는 중등학교를 넘어서서 초등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학교교육의 정상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태에 있다. 학교교육에서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이 교과학습에 쏠리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학습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및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간의 바람직한 상호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학습의 인간화는 만족스럽지 못하며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것 같은 전망마저 희박해 보일 정도다.

그렇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 중에 인성교육을 꼭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평가들이 실제에 부합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부딪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 전통교육 기관의 하나인 서당의 교육과정을 통해 오늘날 초등학교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느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전통교육기관인 서당의 교육과정을 탐색하여 그 교육이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고찰하고, 서당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즉, 서당의 교육과정을 통한 현대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인성교육이 힘들어지는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전통교육기관인 서당의 교육 내용과 학습 방법을 살펴보고, 서당의 교육운영의 특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적 의의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교육기관인 서당의 교육운영 중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오늘날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연구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첫째, 서당의 교육 목적과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학자들의 한국교육사 및 한국사상사에 관계되는 저술서와 서당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서당교육에서 중요시한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한다.

둘째, 현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탐색한다.

셋째, 서당의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오늘날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 본다.

Ⅱ. 전통 서당의 인성교육

1. 교육내용

「강독(講讀)으로는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鑑), 소학(小學),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율(唐律), 등이 보통이요. 춘추(春秋), 예기(禮記), 근사록(近思錄) 등 서적을 읽힌 서당은 드물었다.

제술(製述)로는 오·칠언 절구(五·七言 絶句), 사율(四律)과 고풍(古風) 십팔구시(十八句詩) 작문(作文) 등이 보통이었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궁향(窮鄉), 소촌(小村)의 작은 서당에는 제술이 제외된 데도 많았다.

습자(習字)는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이었으니 자획이 성양(成樣)이 되면 책초(冊抄)와 서찰체(書札體)의 연습으로 실용적인 면에 힘쓰는 것이 보통이었다」¹⁾고 하여 서당의 교육내용을 크게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 강독(講讀)

1)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7, 253쪽

(1) 교과목

강독(講讀)의 교과목으로는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鑑), 소학(小學),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율(唐律) 등이 보통이며, 춘추(春秋), 예기(禮記), 근사록(近思錄) 등의 서적을 읽힌 서당도 있었다.

강독의 순서를 보면 천자문(千字文)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童蒙先習), 통감(通鑑), 소학(小學),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당송문(唐宋文), 당율(唐律)로 나아갔다. 서당에 따라서는 간혹 춘추(春秋), 예기(禮記),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히기도 하였고, 더욱 더 정도가 높은 경우 주자어류(朱子語類), 제성이설(諸性理設), 이정전서(二程全書), 사략(史略) 등 높은 교양철학과목도 있었으나, 서당에서의 교과목의 특징은 그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천자문부터 한문의 기초를 공부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내용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²⁾

서당은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본의 이수순서는 서당마다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인 정형과 비슷한 경향은 있었다. 서당교육의 기초단계인 소학단계까지는 예상되는 이수 교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³⁾

① 천자문(千字文) → 사자소학(四字小學) → 명심보감(明心寶鑑) → 통감(通鑑) → 소학(小學)

② 천자문 → 사자소학 → 명심보감 → 소학

③ 천자문 → 사자소학 → 동몽선습(童蒙先習) → 통감 → 소학

④ 천자문 → 사자소학 → 동몽선습 → 소학

⑤ 천자문 → 추구(推句) → 명심보감 → 통감 → 소학

⑥ 천자문 → 추구 → 명심보감 → 소학

2) 김용동,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0쪽

3) 박래봉, 『새교육 1월호』, 『서당교육의 기본과정과 이수연수』, 대한교육연합회, 1977, 21쪽

⑦ 천자문 → 추구 → 동몽선습 → 통감 → 소학

⑧ 천자문 → 추구 → 동몽선습 → 소학

이 순서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수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① 천자문 → 사자소학 → 명심보감(동몽선습) → 통감 → 소학

② 천자문 → 추구(사자소학) → 동몽선습(명심보감) → 소학

서당은 무학년제이고 이수연한에 관하여는 3 ~ 4년, 많으면 8 ~ 9년을 수학한다는 등 막연하게 언급한 것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드물다. 이와 같은 구분은 평균연수에 지나지 않으며 각자 능력에 따라 이수연수의 폭도 넓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재내용

서당의 교재 중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소학(小學) 등의 내용들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천자문]은 중국 남조 양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만든 일천 자(一千字)로 된 시집이다. 이 천자문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우리의 것은 우리말 발음으로 고쳐 쓰여졌다. 그리하여 이 책에 <(千) 하늘 천>과 같이 새김과 음을 달아 읽도록 하는 책이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천자문은 한자를 배우는 입문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의 자녀들을 마을 서당의 훈장이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천자문을 공부하도록 했다고 한다. [천자문]은 우리나라에서 한문교육의 기본교재로서 역사적 가치가 제일 크다. 남녀 초학자(初學者)의 교과서이고 한자의 습자 교본으로도 활용하였다.

서당에서 [천자문]의 교수 방법은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처럼 일률적으로 학습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 학습자의 개인차와 그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놓고 개인적 지도방법에 의하여 교수된 셈이다. 따라서 서당에 똑같

이 입학했어도 그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다르고 진도도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둔한 학생은 천자문이나 동몽선습을 계속 읽고 공부하는가 하면, 재능이 우수한 학생 가운데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는 이도 있었다. 무학년 교육제도가 실시되었고, 능력에 따라 언제나 월반할 수도 있었다.

[천자문]은 어린이들의 입문기 교육을 함과 동시에 예절교육 및 실천의 일차적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동몽선습]은 16세기에 박세부가 아동용 교과서로 편찬한 것인데, 전통적으로 서당에서 널리 사용된 동몽용(童蒙用) 교재였다. [동몽선습]의 내용은 먼저 오류의 요점을 서술하고, 이어 총론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를 간단히 기록하여 학생들이 외기 쉽고 덕행함양(德行涵養)의 도움이 되도록 편찬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명심보감]은 명나라의 범립본(范立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은 계선편(繼善篇), 천명편(千命篇), 순명편(順命篇), 효행편(孝行篇), 정기편(正己篇), 안분편(安分篇), 존심편(存心篇), 계성편(戒性篇), 권학편(勸學篇), 훈자편(訓字篇), 성심편(省心篇) 상·하, 입교편(立教篇), 치정편(治政篇), 치가편(治家篇), 안의편(安義篇), 존례편(尊禮篇), 언어편(言語篇), 교우편(交友篇), 부행편(婦行篇), 등 20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 5편을 더하여 초략본(草略本)으로 추가 수록하였다. 존심편은 편명에만 전하고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다.

[명심보감]에서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자기를 반성하여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함으로써 숭고한 인격을 도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삼강오륜을 말함으로써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 사이의 인간관계 질서를 밝히고, 천명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이를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하여

안분수명(安分守命)을 권유하였으며, 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배워서 학문을 성취하고 큰 사업을 이루어 이름을 빛낼 것을 강조하였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금언들은 개인의 인간수련에서 시작하여, 한 가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사회에 참여하며,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수 백년을 두고 [명심보감]은 인간수련과 입지를 세워 학문을 성취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와 인류의 문화에 기여하여서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명심보감]은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건전하게 인생길을 개척하며 이끌어 가는 깨우침을 주는 글이다.

[소학]은 중국 송나라 주자(朱子)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편찬한 책으로 수신서(修身書)이다. [소학]은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편은 다시 입교(入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稽古) 등 네 편으로 구분되고, 외편은 가언(嘉言), 선행(善行)의 두 편으로 분류되었다.

내편의 입교 편에는 주로 옛날의 교육방법과 제도에 대한 것으로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을 태교에서부터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제 간의 도리 등을 담은 내용이다. 명륜은 부자·군신·부부·장유·봉우의 윤리를 밝힌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하는 것이다. 계고는 춘추시대 이전의 사료에서 입교·명륜·경신에 부합되는 사례를 든 것이며, 가언은 한대(漢代) 이후 명현(名賢)의 격언과 명가의 가훈을 모은 것이고, 선행은 역시 한대 이후 선철(先哲)들의 훌륭한 행실을 모은 것이다.

[소학]의 내용은 주로 유교의 윤리사상을 논하였으며 개인도덕의 수양서로서 훌륭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의 인성교육의 자료로 활용해 봄직하다.

(3) 학습방법

강독은 날마다 자기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1일간 숙독(熟讀) 하되 ‘서산(書算)’을 놓고 독수(讀數)를 센다. 일 단계마다 백독(百讀)이상이 보통이다. 1일간 숙독한 것은 그 이튿날 배송(背誦)한 이후 새것을 배운다. 만일 배송을 못하면 배송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숙독시킨다. 이리하여 두뇌의 소질대로 진도는 개인마다 달라, 천재는 천재대로 진도가 빠르고, 지진자는 오랫동안 같은 내용을 학습하다가 낙오되는 경우도 있었다.

계몽의 순서는

첫째 [천자문] 같은 것으로 단자(單子)를 가르치고
둘째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것으로 단자를 붙여서 음독(音讀)하는 것을 가르치고
셋째 구두(句讀)의 문리(文理)를 가르치고
넷째 일장(一章)의 문의(文意)를 가르치고
다섯째 교사 없이 자해자독(自解自讀)하게 된다.⁴⁾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서당의 학습방법은 개별학습으로써 암송(暗誦)⁵⁾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문을 혼자서 반복 암송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을 문리를 얻게 된다고 하였는데, 한문 음독 궁극적인 목적이 문리를 깨우치게 함에 있었다. 반복하여 읽는 것은 한문강독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교수방법은 개별학습, 능력별 수업을 하였으며, 생도들의 학습방법은 소리를 내어 계속 외는 방법과 문답식 학습을 하였다. 소리를 내어 읽을 때는 강약을 넣어서 읽는 것이 문맥이해와 암송에 유익하므로 서당의 강독시간

4)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7, 251쪽

5) 서당에서의 암송(暗誦)은 책을 보지 않고 소리내어 외는 것으로, 이 때 강약을 넣어서 신체를 전후로 움직이면서 읽는다. 한문의 문맥이해는 암송의 방법이 효과적이라 하여 서당에서는 암송을 강조하였다.

은 매우 시끄러웠다.

생도들은 반복학습에 이은 자율학습의 단계에서 학습의 요지, 구절을 자세히 알고, 설명, 발표가 막힘없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훈장은 생도들에게 주입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깨우치도록 자율학습을 요구하는 가운데 매일 강(講)을 받고 학습이 철저히 된 것을 확인한 뒤, 능력에 따라 새로운 학습 범위를 정해 주었다. 이때는 형식만 취하여 많이 가르치지 않고 대신 생도들이 능력에 따른 알맞은 분량을 반복학습 시키고 또한 철저하게 개별지도 하였다. 그리고 문답식 방법을 통하여 생도의 자질에 따라 충분히 이해시키는 교수법을 취했다. 학습 분위기는 매우 엄하게 통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생도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생도들에게는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화를 통한 학습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학습이 삶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은 그 자체가 대화이다. 학습이 대화로 되면 학습은 각자가 가진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즐거운 삶의 장이 된다.⁶⁾

서당교육이 학습에서 매우 엄격한 통제를 하였지만, 어린이들에게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특히 인성교육에서 더욱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당에서 당일의 학습은 다음날 강에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강에서 합격하면 새로운 학습량이 부과되어 진도를 나아갈 수 있었고, 불합격되면 지금까지 하던 학습내용을 합격할 때까지 반복하여 계속하여야 했다. 결국 당일의 학습은 다음날 강에서 비로소 정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⁷⁾

6) 김종문, 『21C 삶과 대화의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2000, 74쪽

아는 것보다 실천을 더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학습한 내용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비추어 볼 때, 서당에서의 반복학습은 오늘날 인성교육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만하다고 하겠다.

나. 제술(製述)

서당의 제술은 시작(詩作)이 주가 되어 오언절구(五言絕句), 칠언절구(七言絕句), 사율(四律)과 고풍(古風) 십팔구시(十八句詩)가 있었으나 대체로 정도가 높은 서당에서 이루어졌다.⁸⁾ 논술, 전기(傳記), 서(序), 발제(跋題), 송명(頌銘), 찬책(贊策)이 행하여지는 곳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제술은 시회, 야유회, 백일장 등의 특별행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술은 시회(詩會), 야유회, 백일장 등의 특별행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회(詩會)는 시작(詩作)과 시유키가 있었는데 시작은 시제(詩題)와 운(韻)을 훈장이 직접 내기도 하고 내방인사에게 청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향교에서 시제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시작은 야간 또는 여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기적인 행사로 이루어진 시작(詩作)은 시회, 시낭송회, 경시회, 규모가 큰 것으로는 경시대회, 백일장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서당의 시작이 봄과 여름에 많이 실시된 것은 계절이 풍류라기보다는 이를 실시하는 야유회 등이 이 때에 많았던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서당 야유회가 놀이에 그치지 않고 학술대회를 겸한 수학의 연장이었고, 강(講)과 병행하여 실시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의 시작은 종합적인 학술경연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부형이 동참하여 실시를 한 것

7) 김용동,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37쪽

8) 안상원, 「한국서당교육사」, 동재문화사, 1984, 59쪽

은 서당교육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관등놀이와 같은 민속행사 때 겸하여 이루어졌고, 이 때 학부모들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제술 행사에서 학부모들을 동참시킴은 서당에서의 생활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가정과의 유대를 긴밀히 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은 오늘날 학교교육에서도 적극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술은 계절과 학과를 조화시켰다. 여름철 더운 때는 어려운 학과의 강독을 폐하고 흥취를 끄는 시(詩)와 율(律)을 읽고 짓는 것으로 일과를 삼고, 봄과 가을에는 역사서나 고문같은 경연중간성(硬軟中間性)되는 문장을 읽고 겨울철에는 경서(經書)를 읽었다.

봄과 가을은 비교적 밤이 짧기 때문에 야독이 없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사율(四律)을 짓는다.⁹⁾ 이것은 제술(製述)이 계절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습자(習字)

습자는 해서(楷書)를 중심으로 연습하다가 행서(行書), 초서(草書)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당의 습자는 문자이해가 주였으므로 실용성의 문제는 2차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양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습자의 학습량은 개인 진도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초보자일수록 비중이 높았다. 습자가 초학단계(初學段階)에 있어서 실용적인 면보다도 문자이해의 수단이었던 점과 습자가 강독이나 제술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습자의 비중에 비하여 습자 시간과 내용이 빈약하였다.

습자는 1획 1획에 힘을 주어 되풀이하여 연습시킨다. 장시일에 걸쳐 충분

9)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7, 252쪽

히 익히고 습숙(習熟)하면 문자 구성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마치면 훈장은 지면 한쪽에 문자를 써 주어 이를 교본으로 삼아 빈 쪽에 쓰게 하였다.

별도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생도가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한자 및 단구 등을 적절하게 써 주는 것이 관례였다.¹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습자지의 사용 등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습자지로는 종이 대신에 분판(粉板)을 사용하였는데 붓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물걸레로 지우면 다시 깨끗한 분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여 습자연습은 분판으로 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

습자의 교본은 초보자는 [천자문]이 습자의 교본을 겸하기도 하고 별도로 훈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아서 이를 모사(模寫)하기도 하였다. 상급자는 서한문(書翰文)쓰기와 [동몽선습] 같은 정도 높은 교본을 세필(細筆)로 서사(書寫)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습자 교육은 단순한 문자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 습자 교육은 곧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르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습자 교육은 한 획 한 획을 쓸 때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한 방법이었다.

2. 교육평가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에서 한 분야만의 전문가는 바람직한 인간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경전에 밝고 행실을 닦아 도덕을 겸비해서 스승이 될 만한 자”였다.¹¹⁾

10) 이병수, 「서당교육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39 ~ 40쪽

11) 조화태·정재걸,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9, 64쪽

이에 따라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식의 평가보다는 도덕성을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당에서의 평가는 먼저 학습 내용의 완전한 습득과 더불어 교육 전반에 걸쳐 사람 됨됨이의 평가를 강조하였다.

가. 강독의 평가

서당에 있어서 강독의 평가절차를 강(講)이라고 하였다. 평가의 내용은 강독, 암송, 자의, 문의 등과 제술이 포함된다. 서당의 강독은 강에서 시작된다. 강에는 매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일 배운 것을 오늘 암송하고 배운 것을 모두 외우고 내용을 해석하고 다 쓸 줄 알아야 합격되어 다음 진도를 나아간다. 이렇게 평가하여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나가지 않고 다시 배우게 하였다. 단원과 문장 구절에 따라 5일강, 10일강 등이 있으며, 한 단원이 끝나면 끝난 단원을 평가하였다. 훈장에 따라 날짜별(5일강, 10일강, 월강)로 평가하는 서당도 있었고, 한 단원이 끝나면 배운 단원을 평가하는 훈장도 있었다.

성적평가의 등급은 다섯 등급으로써 순(純), 통(通),략(略), 조(粗), 불(不) 또는 대통(大通), 통(通),략(略), 조(粗), 불(不)로 구분하였다. 조(粗) 이상은 합격으로 순(純)이나 대통(大通)을 받은 생도에게는 부상을 주어 격려하였고, 불(不)은 불합격으로 학습이 완전할 때까지 반복학습을 시켰다.

지강(指講)은 전일에 배운 것을 훈장 앞에서 교재를 덮고 난 다음 눈을 감고 바로 앞거나 뒤로 돌아앉아 배운 글이나 문장을 외워 뜻을 풀이하거나 자의, 문구, 문의에 대한 훈장의 질문에 완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전일에 배운 것을 알고 훈장에게 시험받는 것을 지강(指講)이라 한다.

괘책례(掛冊禮)는 한 권의 교재를 마쳤을 때 교재의 전부 또는 부분 부분을 암송을 하거나 훈장의 질문에 답하는 시험으로 합격을 하면 다른 교재를 배우게 되고 한 권의 책을 마쳐 합격한 것으로 축하의 괘책례를 한다. 일종의 진급식으로 책걸이 또는 책세식(冊洗式)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장원례(壯元禮)는 서당전체의 행사로 실시되며 이날을 강날이라 불렀다. 서당의 전생도가 시험 보는 날이다. 강은 제술까지 포함하는 서당도 있다.

강은 서당에 따라 다르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강의 대상은 강독, 암강(暗講), 문장해석 등을 평가 집계하여 합격, 불합격과 석차를 결정한다. 제술을 포함하는 경우는 주제를 주어 작문토록 하여 평가하고 점수를 강독과 합하거나 별도로 분리하는 등 서당마다 다르다. 평가의 등급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였다. 이 때 수석한 사람을 장원이라 하였고 장원한 부모는 기쁨과 사은의 뜻으로 마을의 노인이나 유지까지 초대하여 소연을 베풀었다. 장원생도에게는 상품으로 지(紙), 필(筆), 묵(墨)을 수여하고 성적불량자에게는 태벌(答罰)을 가하는 서당도 있었다.

백일장은 개별 서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접 서당과 연합하여 학술 경연대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백일장에 참가하여 장원하는 것은 서당의 명예였기 때문에 서당마다 이에 대비하여 특별 지도를 하기도 하였다.¹²⁾

나. 습자의 평가

습자의 정기적인 평가는 전시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서당의 습자는 습자의 자의와 같이 문자 학습의 기초로 실시되었다. 자획을 바르게 쓰는

12) 오택석, 「서당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80쪽

것이 문자 이해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자가 강독에 비하여 학습 시간이 현저하게 적었던 것은 강독보다도 금전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서당의 평점이 간소화되고 초서, 행서를 교수한 서당이 적었던 서당의 습자교육은 초보의 문자 학습에 그치고 그 이상의 발전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습자가 훈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서당에서의 평가가 ‘품행이 좋지 않으면 습자의 점수를 감한다.’든지, ‘획자사정(劃字思正)’이라고 하여 글자를 바르게 쓰는 자세에서부터 바른 생각이 깃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 습자를 인간수양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¹³⁾

서당에서의 교육평가는 학습내용의 완전한 습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단순한 지식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생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실천적 인성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서 품행을 함께 평가한다든지, 글자 쓰기의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자의 이해에만 관점을 두지 않고, 글자 하나 하나의 획을 바르게 썼는지도 함께 평가하였다. 이것은 평가가 단순한 지식의 평가가 아니라, 인간 수양 및 훈육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서당 교육에서의 평가는 바로 인간 됨됨이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면이 지식위주의 평가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가진 기술자를 기르는 데는 좋을지 모르나,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학교교육, 특히 도덕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서당교육의 평가방법이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이병수, 「서당교육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60쪽

3. 훈육과 예법지도

서당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훈육과 예법지도를 중히 여긴 점이다. 특히 실천예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점은 오늘날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당에서 이루어진 훈육 및 예법지도의 방법을 오늘날의 학교교육에 잘 적용하면 실천적 도덕성을 갖춘 인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서당교육의 목적이 경서에 능통할 뿐 아니라 유교이념에 기초한 인격의 함양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훈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훈육 방법이 발달되었는데 서당에서의 훈육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과를 통한 훈육

서당은 원칙적으로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일과도 일정한 것이 없었다. 서당의 일과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이 강행되었다. 생도들이 아침에 서당에 오면 먼저 훈장에게 인사를 하고, 생도들끼리 인사를 나누어 서로 예의를 지키게 했으며 생도들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하여 학습이나 생활에 있어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하는 서당이 많았다. 즉, 일과를 통하여 사우(師友)간의 예절준수, 학풍, 진학에 힘썼다.

(2) 행사를 통한 훈육

서당의 행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행사로는 괘책례(掛冊禮), 장원례(壯元禮)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훈육적 요소가 포함된 행사이며 그 밖의 행사로서 개접례(開接禮), 윤강(輪講), 상읍례(相揖禮), 위로회(慰勞會)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에서도 훈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었다.¹⁴⁾

괘책례(掛冊禮)는 한 권이 교본이 끝나면 그것을 걸어두는 축하식을 올린다는 뜻에서 나온 일종의 진급식으로 학부모의 부담 능력에 따라 소연(小宴)을 베풀고 훈장에게 사은을 표시하고, 전생도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나라에 하였다.

서당에서 강(講)을 통하여 한문, 강독, 암송, 문장해석 등을 평가 집계하여 합격, 불합격과 석차를 결정하고 수석자를 장원이라 하였는데, 그의 부모는 사은의 뜻으로 촌락의 유지 등을 초대한 가운데 소연을 베풀었다. 이것을 장원례(壯元禮)라 하는데 장원례에 선발되고 장원례를 베푸는 것을 생도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일생의 커다란 명예로 여겼다. 장원례는 단순히 상을 주고 소연을 베풀어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적 행사였다.

개접례(開接禮)는 일종의 시무식으로 훈장과 생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업성취를 회원(希願)하고 소연을 차린다.

윤강(輪講)은 생도가 순차적으로 교본 또는 명언, 어구(語句)를 암송하는 것이며 달밤에 마당에 나가 배운 것을 암송하며 돌기도 하였다.

상읍례(相揖禮)는 서당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를 갖추는 뜻에서 각 반수(班首)가 각반 인원을 인솔하고 열을 지어서 읍(揖)한다.

위로회는 훈장의 1년간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생도들이 훈장에게 선물을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생도들에게 훈육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14) 김용동,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45쪽

(3) 학과를 통한 훈육

서당에서의 교과는 대부분이 경서(經書)였으며, 이것은 곧 유학에 근거를 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리, 도덕 내용의 교본이 교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덕의 예법은 서당교육의 중심이었고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교본의 대부분이 경서였음은 인간의 인성 함양과 실천 도덕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당에서 학과를 통해 훈육에 힘썼으며, 일상생활에서 예법이 엄격하게 요구된 것은 서당이 유학의 영향 하에 있었던 까닭이다.

(4) 상벌에 의한 훈육

서당훈육의 특색은 벌에 있다고 하겠다. 유교의 영향으로 예법을 중히 여긴 만큼 서당에서는 상벌로써 훈육에 힘을 기울였다.

생도는 아침마다 훈장 앞에서 전일에 배운 것을 암송하여야 하며, 불합격이면 그 자리에 서서 바지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써 생도의 종아리를 때린다. 훈장은 생도의 성적의 양부(良否)에 따라 칭찬하거나 벌하여 분려(奮勵)시켰다.¹⁵⁾

이는 서당교육의 훈육이 체벌로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달초(撻楚)’라는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달초’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교육적 필요에 따라 훈장에게 부탁하여 체벌을 내림으로써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이었다. 이것은 서당에서의 인성교육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무조건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교사가 어린이들을 교육적 목적에서 가벼운 체벌을 하여도

15) 이병수, 「서당교육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42쪽

교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당에서의 ‘달초’처럼,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교육에서의 체벌의 의미를 오늘날 교육에서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접장제도

훈장의 보조자로서 접장은 생도 중에서 연령이 많고 학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훈장을 보조하게 하였다. 접장은 훈장의 지시를 받아 어린 생도의 강독을 시키기도 하고 생도의 감독을 하였다. 이는 접장이 생도들의 생활 관리를 보조하는 한편 훈장의 일상적인 교수도 보조하게 한 사실로써 서당의 독특한 일면을 보여준다. 접장은 교수와 훈육의 양면에 걸쳐서 훈장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장제도는 훈장 혼자서 많은 생도를 지도할 수 없는 큰 서당에서 시행한 제도로써, 오늘날의 다인수 학급에서도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교사가 많은 어린이들을 지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당에서의 접장제도는 오늘날의 학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력의 차이가 있는 어린이들을 같은 조로 편성하여 필요한 경우 조장에게 접장의 역할을 맡기는 방법도 학습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서당교육은 예법지도를 중히 여겼으며 예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 것은 서당교육의 특징이 하나였다.

예법지도의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언행, 용의(容儀) 등의 몸가짐에서부터 면학,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걸쳐 그 지도가 이루어졌다.

4. 교육과정의 특징

가. 자유로운 형태의 운영

서당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이 자유롭고, 입·퇴학이 자유로우며, 학습기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었다.

서당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휴일이나 방학은 없었으나, 설, 추석, 동지, 한식 등과 같은 명절이거나 극한서, 농번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훈장의 재량에 의해 휴학을 했는데 이는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초·중등 학교에서도 적용된다.¹⁶⁾ 초·중등 교육법 제 47조 휴업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 · 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교 기념일 등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운영 공통지침의 연간수업시간 수업운영지침¹⁷⁾과 교육과정운영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프로그램 운영 시 서당의 여러 교육 방안 등을 참고로 한다면 훌륭한 재량휴업일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16) 오늘날의 초등교육과 비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을 예로 들기도 한다.

1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서당은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본의 이수 순서는 서당마다 일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체적인 정형과 비슷한 경향이였다.

이는 오늘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해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것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개인차와 능력에 맞게 학습범위를 정하여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습내용의 위계가 분명하고, 학습 집단 구성원의 개인차가 심하게 작용하는 교과, 난이도가 논리적 위계를 기준으로 조직한다는 점과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 지도 시에 서당이 8가지 이상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4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 연한을 정한 것을 참고로 하면 오늘날 초등교육에서도 융통성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서당의 교수방법은 강이 주된 것이었다. ‘강’이란 이미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을 질의 응답하는 교수 방법이다. 강을 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질의응답은 기계적인 기억에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부터 건져주었으며, 또 1대 1의 대면학습이기 때문에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였고, 교사와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교수방법은 학생의 사고력, 비판적 태도,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서당의 강의 방법이 학생의 사고력, 비판적 태도,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초 학습 능력의 신장과 공통점을 가지며 그 활동이 토론 활동에 바탕한 학습자 중심의 상호 문답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초등 교육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라.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서당에서 겨울에는 경사와 같은 어려운 학과를 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율과 같은 흥미 본위의 학습을 시행하였으며, 봄, 가을에는 밤이 짧기 때문에 야독이 없는 대신에 사율을 짓게 하였으며 글을 읽고 난 다음의 오후에는 서예를 익히게 하여 줄음과 게으름을 쫓아버리도록 배려하였다.

계절에 따라 학습 내용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되면 일반 계절에는 보통의 교육내용을 학습케 하였으며, 특히 여름에는 학습부담이 적고 흥미를 자아내는 시문을 낭송하고 짓는 학습을 중심으로 하였고 겨울에는 잠심연구가 요구되는 경서류에 주력했다. 즉, 학습방법에서 학과의 경연성과 계절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과와 같은 피서교육 또는 계절학습이 있었다. 하과는 원래 고려시대 최충이 설립한 문헌공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뒤 십이도 전체가 매년 여름철이면 고요하고 시원한 산방을 빌려 시회를 열고 조출한 잔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일명 하천도회라 부르기도 하였다. 서당에서의 하과는 이와 같은 격식은 차리지 않았으나 유사한 유풍이 전승되었다. 오늘날 학교의 여름 수련회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과와 성격이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¹⁸⁾이 추구하는 성격과 같다.

18)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그 성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교육의 적합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역이나,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해당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됨은 물론이고, 그 해당 교육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사, 학습자, 학부모가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교육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특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 특색있고 다양하며 개성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줄 것이다.

Ⅲ. 현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1. 교과 교육

인성교육은 하나의 교과를 통해 지도되기보다는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과를 가르치는 활동의 본질적 가치는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성은 다차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의 정해진 시간보다 교육과정에 관련하여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여 학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특히 도덕 · 윤리 · 사회 교과

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를 통하여 강조되기도 하지만 예술교과도 인성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즉 음악은 음악을 통하여 아름다운 심성을 과학은 실험을 통하여 협동심과 규칙을 체육은 건강한 신체를 통해 건전한 인격을 형성 할 수 있다.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교육을 말한다. 우리는 지식위주 교육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학교교육의 이차적 목표인 지식교육을 무시할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교육을 통해 그 활동수행에 관련되는 규범, 덕목, 가치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규범, 덕목, 가치들은 우리들이 바라는 인성교육의 내용들이다. 이런 인성교육의 내용들은 도덕교육과 인성교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2. 특별활동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며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속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집단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자율적인 생활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2가지 중점사항이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 제 7차 교육과정(1997)에 의하면 특별활동의 목표와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특별활동 영역별 목표와 내용

영역 구분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목표	• 자주성, 사회성 배양 • 합리적 문제 해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 역할수행과 적극적 참여	• 집단생활의 기본생활 습득 •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영위 • 진로탐색과 설계	• 자발적 참여, 협동심,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자아실현의 기초구축 • 여가활동의 생활 습관형성	• 사회적 책임 분담과 호혜정신 배양 • 협력태도와 지역 사회공헌 • 공동체 의식 소유	• 학교와 지역사회 봉사 • 협동 및 봉사정신과 연대의식 • 심신발달, 극기정신과 진취적 기상 • 타문화가치 이해와 수용
내용	협의활동 역할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	기본생활습관형성 활동 친교활동 상담활동 진로활동 정체성 확대 활동	학술문예활동 보건체육활동 실습노작활동 여가문화활동 정보통신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의식행사활동 학예행사활동 보건체육활동 수련활동 안전구호활동 교류활동

이상의 표를 기초로 하여 각 영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을 알아본다.

① 자치활동

학급회와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맡은 역할수행을 통해 자주성을 기르고 애향반 활동과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② 적응활동

예절, 준법, 질서, 절제, 청결, 정리정돈, 근검절약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친교와 협동생활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클럽선택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문제를 이

해하고 심성계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③ 계발활동

전통예술과 민속놀이를 통한 예절교육과 자신의 흥미, 취미, 적성에 맞는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심선과 성격을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수양을 한다. 특히 자신의 장기와 취미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성격교정을 하거나 특정 능력이나 기능을 배양할 수 있다. 그리고 소년소녀단, 청소년연맹, 적십자, 우주정보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른다.

④ 봉사활동

일손 돕기를 통해 사랑과 호혜정신을 기르고 양로원 방문을 통한 경로효친의 사상을 배운다. 불우이웃 돕기를 통해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공공질서확립 캠페인을 통해 사회생활과 공중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공중도덕을 배양한다.

⑤ 행사활동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식을 통해 의례의 중요성 인지하고 학예 발표회나 전시회, 경연 및 실기대회, 감상회 등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작품준비 과정 속에서 협동정신을 기른다. 문화재나 명승지 답사를 통한 우리문화의 열과 조상에 대한 공경심,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 등산과 야영, 국토순례와 탐사활동을 통한 정신수련을 기할 수 있다.

3. 재량활동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의 기본목표는 「인성교육의 철학 및 목

표정립을 통해 도덕성과 덕성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지도 덕목을 4대 중점지도 영역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생활습관 영역 - 기본예절,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 위생, 물 자절약
 - ② 자아확립 영역 - 정직, 근면, 성실, 자주, 신의, 책임의식
 - ③ 효도와 경애 영역 - 효도, 경애, 전통윤리·예절
 - ④공동체 의식 - 질서, 협동, 준법, 타인존중, 봉사, 정의감, 민주시민 윤리
-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인성교육의 특별 프로그램은 위의 4개 영역에 있는 덕목들을 그 주요내용으로 선정, 조직하여 도덕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사회학적 접근방법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인성교육 교재는 감화나 감동을 주는 예화를 중심으로 내면화, 체험화, 생활화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영역 21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⁹⁾

<표2> 인성교육영역 및 덕목

영역	덕목
도덕적 품성	효행, 예절, 성실, 정직, 근면, 검소 절약, 자주, 생명존중
기본 생활 습관	협동, 질서, 준법, 책임, 봉사, 정의, 타인 존중
진로 의식	자아이해, 일의 세계, 일에 대한 태도, 의사 결정 능력, 인간 관계 기술, 진로계획

19) 경상남도 교육청, 『착한 마음 바른 생활 교사용 지도서』, 1998, 16쪽

4. 생활지도

학교의 모든 활동은 생활지도와 관련이 있다.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지도는 규칙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바르게 인사하기 등이 있으며 인간존중의 내면화를 위한 방안으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대화와 타협하기, 부모님께 경어 쓰기 등이 있다. 이들은 생활의 장에서 현장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의 특성, 능력, 환경욕구를 잘 이해하고 알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문제 해결이나 품행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앞으로의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서 실시되는 종합적 교육활동인 동시에 실천적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생활지도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즉 교육적,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저마다 있는 흥미, 적성, 능력, 성격 등 인격적 특성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발견하도록 하여 흥미를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개인에게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통하여 현명한 선택과 적응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민주사회의 육성과 자가지도 및 자아실현을 통한 올바른 행복한 삶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계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발달에 초점을 두고, 자기발전을 자극하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사랑에 기초하며 처벌보다 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생활지도 영역에는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건강지도, 사회성지도, 여가선용지도, 도덕지도, 종교지도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역의 총화는 결국 생활지도라기보다는 교육의 전체적

영역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과정의 특징

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모든 교과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한 교과로 편성,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과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종결되며,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에 전개하는 교수·학습이 ‘수준’의 개념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면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나. 학습자를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상황에서 핵심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습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의 개선을 위해, 목표 진술,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조직, ‘방법’과 ‘평가’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때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다.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또는 수준별 학습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고정시켜 놓고 그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거나 단순한 이동

식 수업으로 이해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은 학습 능력, 학업 성취도, 학습양식, 학습방법, 흥미와 관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선행 학습요소와 학습해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 지도 방법 등에 따라서도 결정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지향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본’ 교육 내용의 학습 상황에서 실패하는 학습자와 성공한 학습자 모두에게, 즉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방법 및 자료를 제공해 주어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라. 교육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강조한 사항은 학습량의 최적화이다. 이는 현행 교육 내용의 감축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 항목의 단순 축소가 아니라 필수 학습 요소를 정선하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하여 교육 경험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 경험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필수 학습 요소를 정선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 선정 준거 및 기준의 명료화와 교육 내용의 구조화를 지향하고, 이에 따라 학습량의 감축은 물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영역별, 영역간 유사 교육 내용의 중복 제시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수준’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성취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흥미와 관심의 차이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동일한 학습 요소의 선수 학습 요소와 후속 학습 요소 결정, 학년간 반복 학습시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수준과 범위의 결정, 각각의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 수준 결정, 특히 ‘학년별 내용’의 수준별 학습 활동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Ⅵ. 현대 초등학교에서의 적용 가능성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한다.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며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교과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였다면 이제는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교육기관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 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실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현과 교육적 효과를 위해 우리는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며 범계급적 초등학교 교육기관인 서당의 교육방법 중에서 오늘날의 초등교육에 활용할 만한 가치 있는 요소는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둘째,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셋째, 지, 덕, 체 영역의 고른 발달 넷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의 측면이 있다.

1. 교육과정의 다양화

서당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 여건에서 서당은 하나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여러

교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교사도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의 숙달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심화·보충 내용지도를 위한 학습 지도안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위한 개별 학습용 평가 문제지 등이 교수·학습 자료 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경험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선정·조직해야 하며 학습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이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구현이 같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의 적응방안을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급 내 학습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수준별 수업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전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교과와 특성, 활동 주체의 성격, 복수 활동 수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학습 집단 편성 및 수업 방법은 교과, 활동주제, 개인차,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저·중·고학년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운영방안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수준별 분단 편성을 하는 것이다. 둘째, 협력 학습을 위한 분단을 편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 수업을 위한 수준별 반 편성을 하도록 한다.

수준별 분단을 편성하는 방법은 진단 평가나 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3~4개 정도의 심화, 기본, 보충 집단을 편성하여 소집단 별로 순환하여 학습을 지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교사가 소집단 별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집단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협력학습을 위한 분단편성 방안이 있겠다. 이는 학습 성취 수준 차의 고려 없이 무작위로 4~10개 정도의 소집단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교사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과정중심의 수업을

실시 후 소집단 별 협력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체 집단 대상 수업 후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집단에 다가가 보충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4, 5, 6 학년의 경우 이동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수준별 반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수학 교과외의 경우,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단계별 반 편성으로 이동수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위 단계 각급의 학생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늘리고, 하위 단계 학급의 학생 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충실한 학습 지도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학급 내 학습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수업은 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수학 교과에 있어서는 해당 단계의 학습 목표에 대한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차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상급 단계로 진급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차상급 단계에서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그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정의 폭과 깊이를 나타낼 수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재구성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만 인식하는 것보다 그 과정, 학습하는 방법, 자율성, 창의성 같은 것과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학습 편성은 같은 학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서는 소규모, 소인수 학교인 경우가 많아서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서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²⁰⁾ 이와 같이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습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의 운영에서는 활동 주제의 특성,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용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직접적인 활동 체험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습의 개별화와 발표·토의 활동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 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이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자연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20)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6조

2.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가. 활발한 상호작용과 대화학습

서당에서는 문답식 방법을 통하여 생도의 자질에 따라 충분히 이해시키는 교수법을 취했다. 학습 분위기는 매우 엄하게 통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생도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생도들에게는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대화를 통한 학습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학습이 삶에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은 그 자체가 대화이다. 학습이 대화로 되면 학습은 각자가 자신의 삶은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즐거운 삶의 장이 된다.

서당교육이 학습에서 매우 엄격한 통제를 하였지만 어린이들에게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오늘날 특히 덕(德)을 교육해야 하는 도덕교육에서 더욱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기주도적 완전 학습

서당에서 학동은 날마다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그날의 학습량을 숙독하여 서산을 놓고, 읽은 횟수를 센다. 보통 1회의 독서량은 100독이었다. 1일의 독서량을 그 이튿날 배송하여 합격한 다음에 새로운 학습으로 나아갔다. 이는 학동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달랐으므로 일종의 완전학습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만일 배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의 학습성취도가 달성될 때까지 반복시

켜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습 진도가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또한 야독을 장려하여 자정이 넘도록 등불 아래서 글을 읽는 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학습 교재의 순서는 대개 천자문, 유합 같은 책으로 기초 한문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동몽선습 등으로 글자를 붙여서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글의 뜻을 깨치는 방법으로 먼저 구두의 문리에서 출발하여 일장의 문의로 나아가는 점진적 방법으로 가르쳤으며, 마침내 스승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지경으로 이끌도록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의 주된 내용인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스스로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발표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서당교육은 그 스스로 범위를 정해서 나아간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복, 완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학습은 기초·기본 교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

다. 협동학습

접장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당에서 훈장 한 사람으로는 많은 학도를 일일이 가르칠 수 없는 경우에 학도 가운데 학력과 연령이 높은 자를 뽑아

장으로 삼는 것이다. 큰 서당에서는 접장의 수가 2~3명도 있었다. 접장은 스스로 훈장에게 수업을 받는 한편, 훈장에게서 배운 것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는 동료 학도나 혹은 하급생을 대신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접장은 훈장보다도 더 가까이 학도를 접근하고 교유(交遊)하는 만큼 서당 내의 풍기나 분위기 조성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²¹⁾ 접장의 보수는 무료였으나 학비가 면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접장제도는 오늘날 다인수(多人數) 학급에서 교사의 학습지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급의 임원이나 학습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교수·활동을 돕도록 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라. 놀이학습

서당에서는 놀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연령상으로 한창 놀이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놀이를 통해 여가 선용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정도 놀이를 통해서도 주요 관직의 명칭을 익힐 수 있고, 초중중놀이를 통해서도 옛사람들의 시를, 고을모듬놀이를 통해서도 팔도의 각 고을 이름과 위치를 익힐 수 있었다.

서당에서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예절과 생활문, 관혼상제의 예법 등을 특별지도 하였다. 그 내용은 보행법, 정좌법 등의 공손한 행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적문, 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의 작성법도 배웠고, 또한 제사상 차리기, 지방(紙榜)과 축문(祝文) 쓰는 법, 마을의 혼례, 상례, 제례에 직접 참석하여 관혼상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때로는 놀이를 학습에 이용하여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였는데, 고

21) 정낙찬 · 이동기 · 채휘균,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203쪽

인의 시(時)를 암통시키는 초·중·종(初·中·終) 놀이, 시나 작문을 빨리 짓게 하는 화촉작(火燭作), 벼슬의 품계(品階) 및 종류를 익히는 ‘승경도’놀이, 우리나라 팔도의 군명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고을모듬놀이’와 ‘글의 댕구 맞추기’, ‘어사(御使)놀이’ 등이 있다.

이러한 놀이는 오늘날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나오고 있으며 구구단 외우기, 끝말잇기 놀이, 첫말잇기 놀이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 요소 지도하에도 참고할 면이 많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놀이를 통한 교육을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다. 특히 즐거운 생활에서는 놀이와 표현이라는 영역을 두어 건강한 심신과 창의적인 표현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다.

〈 표3〉 서당 놀이의 초등학교에서의 방안

서당에서의 놀이	초등학교에서의 적용 방안
승경도 놀이 ²²⁾ , 고을모듬놀이 ²³⁾	나라이름 말하기 놀이 (사회시간의 활용)
초중종놀이 ²⁴⁾ , 대구 맞추기 ²⁵⁾ 자 맞추기 ²⁶⁾	국어시간 및 재량시간에 글짓기 관련 해서 활용가능
어사놀이 ²⁷⁾	역할놀이 등으로 국어과, 사회과에서 다용하게 활용가능
패짓기 ²⁸⁾ 엽운 ²⁹⁾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외의 경우 낱말퍼 즐, 낱말게임 끝말잇기 놀이 등으로 활용가능
투호례 ³⁰⁾	즐거운 생활과,체육과의 다양한 영역 에서 활용가능

22) 승경도(陞卿圖)놀이 서당의 학생들에게 지루한 시간을 피하여 사회제도를 익히게 할 목적의놀이였다. 이 놀이는 종경도(從卿圖) 종정도(從政圖)놀이라고도 하는데, 룬목(輪木)의 낱수에 따라 유학에서부터 점차 품계를 높여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23) 고을 모듬 놀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 고을(郡) 이름을 말하는 놀이로 地理와 地名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승경도(陞卿圖) 놀이와 유사한 승람도(勝覽圖)놀이가 있는데, 이 방법은 말판에 전국의 명승지를 적어 낱수에 따라 유람을 다니는 놀이로 명승과 지명을 알기 위한 것이다.

24) 초·중·종 놀이 이 놀이의 방법은 어떤 자의(字)를 제시하여, 그 글자가 첫 자로 시작되는 시(詩)를 암송하고, 또 다른 자(字)를 내면 오언시(五言詩)면 제3자, 칠언시(七言詩)면 제4자에 그 자가

3. 훈육지도방법의 다양화

현재 초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³¹⁾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되,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도 형성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전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은 인간 성장 경험을 전체로서 대하고, 전체로서 관리하며,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지·덕·체는 인간의 특성을 물량적으로 구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기능적인 특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인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을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편협된 교육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덕·체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성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초등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든 시구를 외운 뒤, 다시 다른 자(字)를 내어 그 글자의 맨 끝에 오는 시구(詩句)를 암송하는 것으로, 고인의 시구를 많이 알기 위한 것이다.

- 25) 대구(對句)맞추기 어떤 사람이 시구(詩句)를 읊으면 상대방이 읊은 시구에 대구(對句)를 지어 답하는 방법으로, 빠르면서도 절묘한 시상(詩想)이 나와야 한다. 보통 오·칠언절구(五·七言絶句)였으나 삼·사언(三·四言)의 단구(短句)도 있었다.
- 26) 자(字) 맞추기 서당에서는 노는 여가에 묻는 놀이도 하였는데 이를 자 맞추기라고 하였다. 예컨대, 문장과(文章)과 명필(名筆)이 돌 위에 앉은 자가 무엇이나, 또 한 획을 붙이면 시원하고, 한 획을 떼면 간질간질한 자가 무엇이나 등이었다. 이것은 글자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놀이다.
- 27) 어사(御使) 놀이 서당의 학생들이 각각 어사(御使)와 사령(使令), 백성(百姓)이 되어, 백성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어사가 현명하게 판결한다는 것으로 원(員)놀이 군수(郡守)놀이라고도 한다.
- 28) 괘(掛)짓기 「주역(周易)」 64괘(掛)의 글자를 찾아 맞추는 놀이로서, 임의의 책 한 권을 펴서 거기에 나오는 괘(掛)글자를 차례대로 짚어나가는 놀이인데 글자를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 놀이는 재미가 있고 글자도 익히게 되어 건전한 여가 선용의 방법이었다.
- 29) 엽운(葉韻) 이 놀이는 운자(韻字)를 쓴 나뭇잎만한 종이쪽지를 명자(名刺)처럼 말아서 소반 위에 뿌려 놓고 둘러앉은 학동들이 하나씩 집어 펴보고 거기에 적힌 운자에 따라 정해진 시각 안에 시편(詩篇)을 완성하는 놀이다.
- 30) 투호례(投壺禮) 서당에서 강(講)을 하는 여가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신통일을 위해 화살을 3개씩 혹은 5개씩 묶어 일정한 거리하고 1d에 있는 단지에 던져 넣는 일종의 놀이이다. 던진 화살이 다 들어가면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외었다고 한다.
- 31) 개정 7차의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미래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즉 개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자기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인 인간상은 우선 지·덕·체가 모두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이며, 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이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옹기 있게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이라고 하겠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기 위해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영역이 고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풍토에 알맞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여러 영역의 고른 발달을 위해 재량활동을 운영할 때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수용해야 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되 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초등교육의 재량활동은 연간 최소 68시간 이상의 수업시간 수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배당되어 있으며(1학년은 60시간이상), 이는 교육기관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외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특별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의 소

숙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영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활동, 적은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의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년은 0시간, 2·3학년은 34시간, 4·5·6학년은 68시간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되어 있다. 각 학년별로 배당된 연간 수업 시간 수에서 특별활동의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 시간을 배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재량으로 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특별활동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의 필요, 학생의 희망, 요구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된 시간표에 의한 획일적이고 경직화된 운영이 아니라 활동영역, 활동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분할하는 등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서당교육의 목적이 경서에 능통할 뿐 아니라 유교이념에 기초한 인격의 양도 중시하였기 때문에 훈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훈육 방법이 발달되었는데 서당에서의 훈육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과를 통한 훈육

서당은 원칙적으로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일과도 일정한 것이 없었다. 서당의 일과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이 강행되었다. 학동들이 아침에 서당에 오면 먼저 훈장에게 인사를 하고, 학동들끼리 인사를 나누어 서로 예의를 지키게 하였으며 학동들의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학습이나 생활에

있어서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는 서당이 많았다. 즉, 일과를 통하여 사우(師友)간의 예절 준수, 학풍, 진학에 힘썼다.³²⁾

나. 행사를 통한 훈육

서당의 행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행사로는 괘책례(掛冊禮), 장원례(壯元禮)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훈육적 요소가 포함된 행사이며 그 밖의 행사로서 개접례(開接禮), 윤강(輪講), 상읍례(相揖禮), 위로회(慰勞會)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에도 훈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³³⁾

이러한 활동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별활동 영역 중 행사 활동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행사활동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의식, 학예, 보건·체육, 수련, 안전구호, 교류 활동 등과 같은 교육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행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학예와 체육 등 행사 활동을 통하여 평소의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동 및 봉사의 정신과 연대 의식을 높이며, 학교 밖의 자연과 문화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다. 또한 각종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며, 극기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기른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행사 활동은 협의, 토론, 조사, 수집, 분석, 노

32) 李康石, 「書堂의 生成 過程과 그 教育的 役割」,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2, 34쪽

33) 金用東, 「朝鮮時代의 書堂教育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5, 45쪽

작, 견학, 답사, 보고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키우는 중요한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행사 활동은 이런 점에서 종합적인 교육 활동이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속감을 지니고 서로 협력하며 봉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을 서당에서 행해졌던 행사와 비교하면 껌책례는 졸업식이나 종업식과 성격이 비슷하고 장원례는 학예 행사 활동과 뜻을 같이 하겠다. 따라서 서당교육에서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행사 활동을 진행할 때 활동의 적절성을 잘 판단하고, 그 행사활동의 교육적 목표의 달성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이 되도록 잘 연구해야겠다.

다. 학과를 통한 훈육

서당에서 교과는 대부분이 경서였으며, 이것은 곧 유학에 근거를 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리, 도덕내용의 교본이 교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덕의 예법은 서당교육의 중심이었고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교본의 대부분이 경서였음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과 실천 도덕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것은 서당에서 학과를 통한 훈육에 힘썼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예법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은 서당이 유학의 영향 하에 있었던 까닭이다.³⁴⁾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같다. 초등학교 교육과

34) 李康石, 「書堂의 生成 過程과 그 教育的 役割」,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2, 39쪽

정에서의 도덕은 인성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이 가장 중핵이 되는 교과로써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의 가장 밑바탕으로 도덕적 자질과 품성을 꼽고 있다. 또한 도덕과를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람직한 자라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도덕적 덕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도덕성 함양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바른 인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유덕한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통합적 인격 교육 내지 덕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도덕과는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도덕과는 1~2학년의 바른 생활 교육과 중등 이상의 7~10학년 도덕과 교육의 중간자적 역할로써 양자를 연계하면서, 인격의 토대 구축과 그 심화·발전을 도모하는 교과이다. 우선 1~2학년의 바른 생활과 교육에서는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 규범의 습득을 통해 덕 형성의 출발과 함께 그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3~6학년 도덕과 교육에서는 바른 생활과를 통해 형성된 기초 위에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덕³⁵⁾ 가치, 규범의 내면화와 자율적인 실천 성향의 형성을 꾀함으로써, 인격 형성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그 심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덕과의 기능은 교과 통합적 기능과 가치 통합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교과를 통해 습득된 지식과 능력, 태도를 통합하여 도덕적 삶의 안목(지식)과 실천의지(능력), 그리

35) 도덕적 덕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목적으로서의 선한 삶은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상품으로 규정되다. 예컨대 사람이 근면하게 일하고 생활함에 있어 탁월하고 또 그것이 성품화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근면의 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덕은 인간을 선하게 하며 그 자신의 도덕적인 일을 잘 하게 하는 성향 내지 품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개인생활과 공동체 생활 모두에서 선하고 바람직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고 행동성향(태도)의 형성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과 통합적 기능은 건전한 인격 형성의 바탕이 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장면과 계기를 통하여 습득한 여러 가지 가치, 규범들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 관계나 모순성을 파악하여 하나의 통합된 가치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가치 통합적 기능 역시 서당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격형성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도덕과 교육과 서당교육의 학과를 통한 훈육지도는 그 지향하는 방향이나 방법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서로 적용 가능하다.

라. 상벌에 의한 훈육

서당에서는 학부형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달초(撻楚)’라는 체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달초는 학부형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적 필요에 따라 훈장에게 부탁하여 체벌을 내림으로써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방법이다. 이는 서당에서의 인간교육의 일면을 보여준다. 오늘날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무조건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고, 교사가 어린이들을 교육적 목적에서 가벼운 체벌을 하여도 교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당에서의 달초처럼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교육에서의 체벌의 의미를 오늘날 교육에서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교육평가의 다양화

서당에서의 평가는 먼저 학습 내용의 완전한 습득과 더불어 교육 전반에 걸쳐 사람 됨됨이의 평가를 강조하였다. 즉, 단순한 지식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생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실천적 인성을 갖춘 도덕적인 인

간육성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평가에 있어서 품행을 함께 평가한다든지, 글자 쓰기의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자의 이해에만 평가의 관점을 두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의 획을 바르게 썼는지도 함께 평가하였다. 이것은 평가가 단순한 지식의 평가가 아니라 인간 수양 및 훈육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서당교육의 평가는 바로 인간 됬됨이와 그 외 여러 가지 면의 다면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교과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가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전 과정에서 교과 활동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종전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선다형 일제식 시험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단답형 교과인 수학에서는 매 학기 말에 단계의 진급과 재이수를 결정하기 위해 공신적인 일제식 시험을 한차례 치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도 단계형 교과의 수학에서도 학생이 이수한 단계와 그 단계에 취득한 점수의 기록을 병행하여 학생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다양한 형성 평가 결과나 수업 관찰 및 지도 경험에 기초하여 문장으로 진술하고, 다음 단계의 수업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서당의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

으로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 아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며 도달점의 확인 평가가 아닌 사고 과정 중심의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평가는 특정 영역에 치우친 평가가 아닌 전인 지향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수행평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현실 상황과 장면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평가 방안이다. 학생 스스로 지식, 기능을 산출물, 행동, 답으로 표현, 작성하는 평가인 것이다.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지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창의성, 고등사고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데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고등정신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진리관, 지식관, 학습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이며, 개개인을 단위로 평가하는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이다. 이 방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전 영역의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기원은 우리의 서당교육에서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 서당교육에서의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잘 적용하여 온고지신³⁶⁾한다면 교사와 학생들은 지식의 구성점 위에서 좋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6) 온고지신(溫故知新) :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 중에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라는 구절이 있다. 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예 것이나 재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우리 교육의 문제는 세계화가 주장하는 상호 경쟁과 투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의 과다에 있다. 왕따 문제, 학교 붕괴 문제도 결국 학생 상호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쟁은 동일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데서 비롯된다.

위 문제에 착안하여 오늘날 초등교육에 비추어 서당에 대해 알아보며 그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서당은 고구려 시대 경당에 그 기원을 둔 사설 교육 기관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서당은 훈장, 접장, 학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접장의 역할은 오늘날 상호학습이나 협동학습 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서당의 교과목이나 교재 등은 오늘날 초등교육과정의 요소 중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당은 그 교육과정 운영상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교육과정이란 서양의 쿠레레(currere)란 어원으로부터 출발했다. 경기코스, 트랙, 나아가 수행해야 할 교수 과목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공통적인 기준을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서당은 이러한 공통적인 기준에서도 그 형태가 자유로웠으며 수준별 학습이 가능했다. 또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계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서당에서의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계절에 따라 배우는 과목, 흥을 돋구는 방법 등 다양한 교수법이 구사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의 전체적인 면이

삶의 과정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은 아동들이 지겨워하는 활동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기는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놀이학습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만한 면이 많다. 승경도(陞卿圖) 놀이, 고을 모듬 놀이, 초·중·종 놀이, 대구(對句) 맞추기, 자(子)맞히기, 화승작(火繩作), 어사(御使)놀이, 괘(掛)짓기, 엽운(葉韻), 투호례(投壺禮) 등의 활동은 교육이라는 측면보다는 즐거운 활동이라는 생각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초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공부라는 단어가 지겹고 힘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내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유희나 놀이를 학습과 관련시켜 지식과 삶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사 다시 말하자면 훈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골모듬이, 비슷한 글자 맞추기, 수가지 놀이, 제기차기, 얼음지치기, 자치기, 씨름, 여름끝, 땅뺏기 놀이 등은 학습이 아닌 놀이로써의 교육을 이룬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서당에서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의 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해법도 얻을 수 있으며 완전학습에 대한 수업방법이나 철학 등을 재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방법 면에서도 또한 개접례(開接禮), 괘책례(掛冊禮), 백일장, 장원례 등의 방법을 현대의 모습에 활용한다면 아동들의 흥미를 살려가며 좋은 교수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대 교육적 측면에서 비추어 교육적 의의를 찾아본다면 서당의 교육은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활발한 상호작용에 기초한 대화학습을 진행하였고, 자기 주도적 완전학습을 꾀했다. 또한 협동학습과 놀이학습을 중시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했다. 셋째, 서당의 교육목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덕,체의 균형있는 조화였다. 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골고루 발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다. 넷째, 서당은 인성교육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을 훈육했다. 다섯째,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평가 방법을 취함으로써 전인적인 면의 고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우리 교육사에서 범계급적인 서민초등교육기관인 서당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서당교육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과 연관성이 많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은 서당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교육인 서당의 교육방법, 평가방법, 훈육방법 등을 현재 초등교육에 적용한다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만규,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1947
- 김용동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래봉 『새교육 1월호』, 『서당교육의 기본과정과 이수연수』, 대한교육연합회, 1977
- 안상원, 「한국서당교육사」, 동재문화사, 1984
- 조형춘, 「조선후기 서당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6,
- 김종문, 『21C 삶과 대화의 도덕교육』, 교육과학사, 2000
- 오택석, 「서당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도경, 「경상남도 초등학교 인성교육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진구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병수, 「서당교육에 관한 일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낙찬 · 이동기 · 채휘균, 『한국의 전통교육』,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 이효련, 「초등학교 인성교재의 내용분석에 비추어 본 인성교육의 실제적 의미」,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화태·정재걸, 『교육사』,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99

李康石, 「書堂의 生成 過程과 그 教育的 役割」,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이유진, 「서당의 초등학교적 의의」,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8

김승현, 「서당식 교육모형의 학교교육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안선희, 「서당교육에서의 열린교육적 요소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미화, 「초등학교 인성교육에 관한 덕목별 현황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관수,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과제에 관한 연구」,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윤희, 「서당교육의 실제와 현대적 의의」,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